

1 개요

곤물당본풀이는 안덕면 화순리 곤물당의 내력을 전하는 신화이다.

고성목은 급히 큰 길을 만들라는 목사의 명령을 받고 고민하던 차에 길이 생기는 꿈을 보았는데 실제로 길이 만들어져 위기를 벗어났으나 다시 위기가 닥칠 것을 염려하여 산방산으로 몸을 숨겼다.

2 내용

어느 목사시절 고성목은 과원을 지키고 사또에게 진상을 바치며 부자로 살았다. 목사가 순력을 돌게 되자 갑자기 석자 너비로 길을 내고, 다섯 자 두께 흙을 깔아 번듯한 길을 만들라고 하였다. 고성목은 고심하다가 길이 만들어지는 꿈을 꾸고 나가 보았더니 과연 길이 생겨 있었다. 목사가 보고 고성목은 인간이 아니라고 칭찬하였다. 고성목은 다시 위험한 일이 닥칠까 염려하여 남신(나막신)을 신고 “주우는 삼방덥이 네 주어라.”고 하며 산방산으로 숨어버렸다. 성씨, 지씨, 양씨, 박씨 두 집안 사람들이 고성목이 살던 터에 당주를 만들고 본향신으로 삼았다.

3 특징

곤물당은 안덕면 화순리 곤물동네에 있다. 고성목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신력의 도움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다만 어려운 과제를 받아놓고 고민하던 차에 꿈에서 본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었을 따름이다. 사람들은 비슷한 일이 거듭 닥치면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몸을 숨긴 것이 뛰어난 선택이었다고 믿어 신으로 섬겼음직하다. ‘삼방덥이’는 산방덥인데, 다른 전승에서는 고성목과 산방덥을 관련지어 이야기하기도 한다.

4 핵심어

화순리, 고성목, 과원, 진상, 순력, 길, 남신(나막신), 삼방덥이, 당주, 본향신, 산방덥

5 원전 서지사항

곤물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